

##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10/30 월요일

### 아침의 누림

요 14:10-11

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대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11 여러분은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하는 일들 때문에라도 믿으십시오.

---

요 7:39

39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요 3:3, 5

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5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 20:22

22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롬 8:9

9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후 13:14

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 물질적인 영역과 비밀한 영역에 관한 분명한 조망을 가져야 한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인도하는 동역자들과 장로들은 주님의 회복이 그들의 어깨 위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주님의 회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달려 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있다. ... 여러분은 이 시대를 알아야 하고 이 시대가 무지한 시대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인 신학에 의해 눈멀어 있고 제한받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현재 있는 영역보다 더 높은 영역, 범위, 왕국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음을 말할 부담이 있다. 이 더 높은 영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의 비밀한 영역이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 권,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2 장, 123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며,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서로 안에 거하시고 상호 내재하신다. 요한복음 14 장 10 절과 11 절에 따르면,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신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체현이 되시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곧 삼일 하나님이라는 영역을 형성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오늘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은 사실상, 단순히 삼일 하나님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다.

완결되신 영은 올리브기름 한 헌에 네 가지 향료와 그 효능을 더해 만들어진 복합물인 바르는 관유로 예표된 복합되신 영이시다(출 30:23-25). 그 영은 완결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셨다. ... 육체 되심을 통해 하나님이 되셨다.

요한복음 7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사람이신 주 예수님께서 장막절을 지내러 올라가신 장면을 볼 수 있다. 장막절 끝 날, 곧 큰 날에 ... 그분은 서시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요 7:37-38)라고 외치셨다.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은 그다음 절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한다. “...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39 절) ... 요한은 어떻게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는가? 물론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께서 계셨지만, ... 복합되고 완결되신 영이신 ‘그 영’은 요한복음 7 장 39 절에서는 ‘아직 계시지 않았다’. ... 사람이신 예수님은 부활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눅 24:26). 그러므로 그 영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까지는 ‘아직 계시지 않았다’. 육체를 입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 곧 생명을 공급하시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

이제 우리는 그 영께서 완결되신 역사에 관하여 무언가를 볼 수 있다. 비록 이미 하나님의 영과 여호와와 영과 성령께서 계셨지만, 요한복음 7 장에서 생명을 주시는 영은 ‘아직’ 계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아직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셨고, 아직 부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7 장의 때에 그분은 여전히 육체를 입고 계셨으므로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생명이 되실 수 없었다. 그러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고, 이제 그분은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효능,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과 연합되었다. 이러한 연합의 산물이 복합되시고 완결되신 영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 권,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3 장, 139-14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 권,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2 장

10/31 화요일

### 아침의 누림

**고전 15:45**

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빌 1:19**

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

**고후 3:17-18**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갈 3:14**

14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 즉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 28:19**

19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

성경은 하나님의 영께서 완결되신 영이 되셨음을 계시한다. ...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동일하시다.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음을 계시한다(요 1:14). 이것이 변하신 것이 아니란 말인가? 더욱이 육체를 입으신 마지막 아담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 먼저 하나님은 육체 되심을 통해 육체가 되셨다는 점에서 변하셨다. 그런 다음 부활 안에서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점에서 한 번 더 변하셨으며, 바로 이 생명 주시는 영은 완결되신 영이시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 권,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3 장, 142-143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그 영은 완결되셨고, ...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 곧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따라서 우리는 완결되신 영과 이러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며 상호 내재하시는데, 이러한 분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 되신다. 비밀한 영역이신 삼일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는 ‘복잡한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지만,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는 여러 ‘복잡한 것들’이 존재하며,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나의 영역은 중국이나 미국이 아니다. 나의 영역은 ‘복잡하시고 이해하기 어려우신’ 삼일 하나님이다. 나는 여기에 아버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아들과, 완결되신 영과 함께 있다. 내가 이러한 삼일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나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다. 내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필요하다면, 나는 이 영역 안에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발견한다. 내게 부활이 필요하다면, 이 영역 안에서 나는 이미 부활했다. 이러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한다!

이제 요한복음 14 장에 계시된,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대해 고려해 보자. 1 절은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다.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근심하는가? 우리는 세상인 이 땅 위에서(요 16:33), 곧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 근심한다.

요한복음 14 장 1 절에서 주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직역하면, 안으로 믿어 들어오고-각주 참조) 또 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사용된 ‘안으로(into)’라는 전치사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이며, 이 근심을 해소하는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영역을 볼 수 있다. 하나는 세상 곧 물질적인 영역인데, 이 영역 안에 온갖 근심이 있다. 다른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라는 영역 곧 삼일 하나님이라는 비밀한 영역이며, 이 영역 안에는 평안이 있다.

요한복음 16 장 33 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들을 한 것은 여러분이 내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여기에서 물질적인 영역(세상)과 비밀한 영역(나)을 본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이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고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우리의 옛사람을 끝내지 않으셨다면, 또한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실 어떤 길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던(비교 요 14:1) 그 장소에 있었다면, 우리는 “주님, 저는 당신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당신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이어지는 절들이 밝혀 주듯이,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분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야만 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가고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므로써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 권,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3 장, 144-14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 권,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1 장

11/1 수요일

### 아침의 누림

요 14:17-18, 20

17 그분은 실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8 나는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

요 14:2-3

2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3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여러분을 나에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롬 8:2

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롬 5:10

10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심을 강조했다. 요한복음 14 장의 첫 부분에 계시된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요한복음 14 장 16 절부터 18 절까지에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말씀뿐 아니라 또한 그 영에 관한 말씀이 있다. ... 첫 번째 보혜사는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이셨고, 또 다른 보혜사는 실재의 영이시다. 요한복음 14 장 17 절에서 실재의 영이신 ‘그분’은 18 절에서 주님 자신인 ‘나’가 되신다. 이것은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여 생명 주시는 영, 즉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일만이 아니라 비밀한 일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 권,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3 장, 149-150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4 장 20 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날’을 말씀하셨다. ‘그날’은 그분의 부활의 날이며(요 20:19), 그날 그분은 공기화되신 그리스도, 즉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므로 ‘그날’은 사실상 ‘부활의 날’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14 장 20 절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도 포함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을 언급한다.

우리 모두는 단지 삼일 하나님이라는 영역이 아니라,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빌 1:19, 롬 8:9, 고후 3:17-18).

요한복음 14 장 16 절부터 18 절까지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실재의 영에 관하여 말하는데, 실재의 영은 믿는 이들 안에서 아들의 임재로 실재화되신 아들의 실재이시다. 그 영은 아들의 실재이시며,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임재는 그 영이다.

아들께서 부활하신 날, 곧 아들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고전 15:45 하) 날 밤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요 20:22). 만일 그분께서 그 영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숨을 내쉬시며 제자들에게 그 영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겠는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아들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과, 믿는 이들이 아들 안에 있는 것과, 아들께서 믿는 이들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요 14:19-20).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이전에 그분께는 제자들에게 밝히실 많은 것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분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요 16:12),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받지 않았고,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은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 안에 있게 될 제자들을 인도하시어, 공기 같은 영이시며 완결되신 영이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모든 실재 안으로 그들을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실재의 영은 그리스도께 들으신 것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스물두 권의 서신서들 안에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다(요 16:13).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아들의 소유이며, 아들 안에 체현된다.

그 영은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받으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재 안에 있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선포하신다. 이것은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한 것인데, 이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표현함으로 영원토록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요 16:14-15). 먼저 만물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 후에 아버지께서 소유하셨던 모든 것이 아들의 소유가 되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그 영께서 들으시고 받으셨으며, 그 영께서 이 모든 것을 믿는 이들에게 선포하신다. 이것은 신성한 삼일성의 영원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전달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 권,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3 장, 150-15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 권,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3 장*

## 11/2 목요일

### 아침의 누림

#### 요 17:21, 23

21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여 주십시오.

23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 롬 8:16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 고전 12:24, 27

24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27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 고전 15:45b

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완결되신 영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음으로 삼일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한다.

모든 믿는 이들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가 되어, 그들 역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해야 한다. 아들께서 믿는 이들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는 것은 믿는 이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요 17:21, 23). 우리의 하나는 반드시 삼일 하나님의 셋 사이의 하나와 같아야 한다. 사실상, 믿는 이들의 하나는 삼일 하나님의 하나이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삼일 하나님 안에서이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는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 권,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3 장, 153-154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7 장에서 아들은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요한복음 14 장부터 16 장까지의 메시지에 대한 결론의 기도에서 주님은 우리의 하나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며,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와 완결되신 영과 함께해야 함을 밝히셨다. 이 진정한 하나는 삼일 하나님과 믿는 이들의 연합이다. 이러한 하나를 갖기 위해서 믿는 이들은 반드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신 삼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믿는 이들 안에, 믿는 이들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신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와 완결되신 영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삼일 하나님과 하나임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이 비밀한 영역 안에서 수행되며,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도 이 영역 안에서 실질적으로 성취된다. 만일 우리가 이 영역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믿는 이들은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매우 뛰어난 것으로 여겨야 한다. 또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지 않으셨다면,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셨다면, 주 영이 되지 않으셨다면, 육체 안에만 계시고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셨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유기적인 방면에 참여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누릴 길이 전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 권,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3 장, 154-155 쪽)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관한 고봉의 진리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새로운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할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다. 영원부터 삼일 하나님은 하나의 영역으로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항상 존재하시며, 상호 내재하신다. 첫째 분이 둘째 분 안에 계시고, 둘째 분이 셋째 분 안에 계시며, 셋째 분은 첫째 분과 둘째 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계시하므로(요 14:3, 10-11, 17-18, 마 10:20, 고후 3:17, 롬 8:9), 우리는 이 셋이 상호 내재하신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삼일 하나님은 하나의 영역이시고, 요한복음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는 이들을 이 영역 안으로 이끌기 원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요 14:3, 20).

요한복음 17 장에 따르면, 믿는 이들이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하나이다(21 절). 이러한 하나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증가와 확장이다. 수없이 많은 믿는 이들이 삼일 하나님 안에 있지만, 대부분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체험과 누림이 없다. 우리는 또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관해 연구하고 그 내용을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처음에는 오직 삼일 하나님만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셨다(요 14:10-11).

그 다음 그분께서 그분의 증가를 시작하시기 위해 육체가 되셨다(요 1:1, 14). 그분은 인성을 취하셨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인성을 그분 자신께 더하셨다(롬 1:3-4). 신성하기만 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성하고 인간적인 분이 되셨다. 결국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은 그 완결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 이러한 이상은 우리에게 성경 전체에 대한 분명한 조망을 준다.(위트니스 리 전집, 1994-1997 년, 4 권, 영문판, 170-171, 17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94-1997 년, 4 권, 영문판, 51, 53, 177-178 쪽

**11/3 금요일****아침의 누림****요 3:13**

13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 본 이가 없습니다.

**엡 4:20-21**

20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21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

**막 1:35**

35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외딴곳에 나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니,

**눅 5:16**

16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골 3:17**

17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딤후 3:16**

16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그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셨으며 세상이 그분을 믿었으며 영광 안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히 4:16**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

주님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사셨다. 그분은 평범한 기도를 드리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살지 않으셨고, 일반적인 기도를 드리는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살지 않으셨으며, 하나님께 종교적인 방식으로 기도하는 소위 경건한 사람, 독실한 사람으로서도 살지 않으셨고, 신성한 것들을 달성하고 획득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도 살지 않으셨다. ... 그 대신 그분은 육체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은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신 사람이셨다. 사복음서는 그분께서 종종 산에 올라가시거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음을 말해 준다(마 14:23, 막 1:35, 눅 5:16, 6:12). 예수님은 육체 안에 계신 한 사람이셨지만, 신성하고 비밀한 방식과 영역 안

에서 비밀스러우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4 권, 하나님-사람의 생활, 10 장, 13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의 모든 기도는 신성한 사실들이다. 우리는 자신의 기도가 신성한 사실들인지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이 직장을 잃어서 주님께 그녀의 가정을 돌봐 주시기를 기도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기도는 신성하지

않다. 그 대신 그녀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다. “주님, 저는 한 주부로서 우리가 당신의 손 아래 있는 것으로 인해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신성한 기도이다.

요한복음 17 장에 있는 주님의 기도를 고려해 봄으로써 우리는 신성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신성한 방식으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인간적인 기도가 아닌 신성한 기도를 해야 한다. ... 비록 우리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 우리 안에 비밀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학급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동년배들이 느끼기에 우리 안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은밀하고 비밀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 장에 기록된 기도를 하신 분은 육체 안에 계신 한 사람이신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셨지만, 그분의 기도는 비밀했다.

기도의 사람이신 첫 번째 하나님-사람의 본은 우리가 모든 것을 신성한 방식으로 행해야 함을 보여 준다. 심지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도 신성해야 하며 단지 인간적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신발을 사고 머리를 자르는 방식도 신성해야 한다. 첫 번째 하나님-사람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그분의 기도였다. 그분의 모든 기도는 신성했지만, 그 기도들은 인간 생활 안에 있었고 그 인간 생활을 비밀하게 만들었다. 그분은 비밀한 인간 생활을 하셨다. 남편은 단지 영적인 방식이 아니라 신성한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신성한 방식과 신성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은 비밀한 것이다. 우리는

신성하고도 비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은 신성하고 인간적이어야 한다. 단지 인간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밀하게 인간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거룩한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이다.

우리에게는 영성에 관한 어떤 관념이 있으며, 이 관념이 우리를 눈멀게 한다. 우리는 자신이 단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성하고 비밀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오늘날 모든 믿는 이들은 신성하지만 또한 매우 비밀한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는 신성하고 매우 비밀스러워야 한다. 심지어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 느끼기에 우리 안에 비밀스럽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 비결은 바로 우리가 사람이지만 신성하게 사는 것이다. 참된 영성은 분명 우리를 신성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더 높은 것이다.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신성하고 비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놀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러한 지혜와 능력의 일을 얻었습니까? 이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까?”(마 13:54-55) 이것은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신성하고 비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사셨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다. 이것은 위대한 비밀이다. 디모데전서 3 장 16 절은 경건의 위대한 비밀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한다. 신성한 분께서 비밀스럽고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셨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4 권, 하나님-사람의 생활, 10 장, 134-13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4 권, 하나님-사람의 생활, 10 장

11/4 토요일

아침의 누림**마 24:38-42 (40-42)**

38 왜냐하면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으며

39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까지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0 그때에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 둡니다.

41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 둡니다.

42 그러므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후 3:6-15 (12-13, 15)**

6 형제님들,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질서하게 행하며, 우리에게서 받은 가르침에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들을 멀리하십시오.

7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으며,

8 또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고, 도리어 여러분 중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하였기 때문입니다.

9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여러분의 본이 되어,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0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도 “누구든지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마십시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11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무질서하게 행하면서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2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고 권유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도록 하십시오.”

13 형제님들, 여러분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14 누구든지 이 편지에 적어 보내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기억해 두고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여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십시오.

15 그러나 그를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에게 하듯 훈계하십시오.

---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들에 의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한 이해도 없지만, 깨어 있고 맑은 생각을 가진 일부 믿는 이들은 데려가질 것이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의 징조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 장 40 절에 있는 두 남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 분명하고, 41 절에 있는 두 여자도 주님 안에 있는 자매들이 분명하다. 이것은 42 절의 말씀에 의해 암시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느 날 우리의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와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말은 40 절과 41 절에 있는 두 남자와 두 여자가 믿는 이들임을 입증해 준다. 주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실 것이며, 더욱이 그분은 구원받지 않은 이들의 주님도 아니시다.

데려가지는 것은 대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휴거는 주님의 오심의 징조이다.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63 장, 735-73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고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흥미롭다. 밭에서 일하는 것과 맷돌질하는 것은 둘 다 먹기 위한 것이다. ... 세상 사람들도 공부하고 일하며, 우리도 역시 공부하고 일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취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보다 우리는 단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 우리가 생존을 유지하는 목적은 십자가의 길을 취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관심은 교육이나 고용이나 사업에 있지 않다.

어떤 젊은이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들으니 얼마나 기쁘냐! 더 이상 공부나 일에 주의하지 말자. 우리의 모든 시간을 기도하고 서로 교통하는 데 들이자.” 그러한 태도는 그릇된 것이다. ... 마태복음 24 장 40 절에서 형제들은 농사짓고 있었고, 41 절에서 자매들은 맷돌질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곡물을 맷돌질하는 것은 매우 고된 일이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이한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마태복음 24 장 38 절에 있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세상적이지만, 40 절과 41 절에 있는 농사짓는 것과 맷돌질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만일 데려가진 이들이 거룩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들이 휴거되었을 리가 없다. ... 때로 어떤 자매들이 거룩함에 관해 많이 말할수록, 그들은 덜 거룩해진다. 그런 자매들은 남편과 자녀와 접대해야 하는 손님들에게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요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 한다면 그 자매들은 더 거룩해질 것이다. 어떤 자매들은 거룩함에 관해 교통하는 법은 알고 있지만, 요리를 잘하는 법은 모른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변명하면서, 항상 가족을 위해 맛있는 음식만 요리해 준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그들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그러한 음식에 대한 불만이 생긴다. 이런 자매들이 거룩해지는 것에 관해 더 말할수록, 그들의 남편과 자녀들은 덜 거룩해진다. ... 우리에게는 고운 가루를 산출하기 위해 맷돌질하는 더 많은 거룩한 자매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마취되어서는 안 되고, 합당하게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 예수님께서는 뚜렷한 목적이 있으셨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휴거되기를 기대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일상적인 의무들에 매우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기 원하셨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합당하게 균형 잡힌 인간 생활이지, 영적인 것에만 골몰하며 남들이 자기를 돌봐 주기를 바라는 수도승의 생활이 아니다. 휴거될 사람은 바로 밭에서 일하고 있는 형제들과 맷돌질하고 있는 자매들이다.

밭에 있는 두 남자 가운데 한 명은 데려가지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진다. 맷돌질하고 있는 두 여자 가운데 한 명은 데려가지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진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데려가지는 이는 성숙한 사람이고, 남겨지는 이는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생명이 차이를 만든다. 생명이 성숙한 이들인 이기는 이들의 휴거는 남겨진 이들에게 하나의 징조가 될 것이다.(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63 장, 736-73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63 장

###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권,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2장

### 찬송: 243 (英) 하나님 영이 이제는 (中:194)

- 1 하나-님 영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실재와 공급 돼.
- 2 하나-님 체현이-신 주 하나-님 나-타내-시고 영은- 또 주의 표-현 돼 생명- 된 주를 계시해.
- 3 하나-님의 모든- 총만 아들- 안에- 거하-시네 주님-은 풍성 가-지고 실재-의 영이 되셨네.
- 4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지-금 그- 영 돼 원천-과 샘과 흘-러움 삼일- 하나님이사실세.
- 5 그 영- 우릴 강하-게 해 마음-에 거-쳐 정-하네 아버-지 모든 총-만이 우리- 속부분 채우네.
- 6 아들-을 통해 보-았네 아버-지 모-든 총-만을 이제- 영 안에 체-험해 생명-과 만유인 아들.
- 7 우리-가 주로 채-워져 주 풍-성 다- 누리-도록 그 영-으로 채우-소서 거룩-한 주의 실재를.

###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 1 단계-순차적 연구

로마서 11:1-36;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54-55 장

#### 2 단계-주제별 연구

Being Subject to Authorities

Scripture: 로마서 13:1-7

Assigned Reading: *CWWN*, vol. 59, "Miscellaneous Records of the Kuling Training (1)", msgs. 12, 14-15

Supplemental Reading: None

Hymn: 86

[churchinnyc.org/bible-study](http://churchinnyc.org/bible-study)

### 11/5 주일

### 아침의 누림

#### 요 1:1-5, 9-14

- 1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 2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 3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생겨난 것이 그분을 떠나서 생긴 것은 하나도 없다.
- 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 5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 9 참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고 있다.
- 10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 11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12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 13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총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